

고려 후기 정토문화의 천태적 성격과 영산회상변상도 연구

이승희

I. 머리말

李承禧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강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불교회화사

‘영산회상변상도’(이하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이 기사굴산에서 제부대중에 계 『妙法蓮華經』(이하 『法華經』으로 약칭)의 내용을 설한 모습을 그린 법화경변상도이다. 총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에는 방편을 통한 成佛과 석가모니불의 구원사상이 7가지 비유와 갖가지 이야기로 설해져 있다.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법화경』의 변상도는 수말·당초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돈황벽화에서 그 실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¹ 돈황벽화의 법화경변상도는 영산회상을 중심으로 주변에 각 품의 내용이 펼쳐지는데, 영산회상도는 『법화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심오한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상징성이 강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돈황의 법화경변상도 형식은 송대에 목판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목판화로 변안되어 『법화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경전의 삽화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산회상도가 본격적으로 보이는 시기는 고려 후기로, 목판 혹은 사경변상도의 형태로 등장한다. 고려 후기 영산회상도에 관해서 국내학자들은 남송대

* 필자의 최근 논저: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20, 2015. 10; 「영산회상변상도 판화를 통해 본 조선 초기 불교문화의 변화」, 『미술사연구』28, 2014. 12; 「高麗後期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美術史學研究』279·280, 2013. 12.

¹ 施萍婷·賀世哲, 「敦煌壁畫中高的法華經變について」, 『敦煌莫高窟』3(平凡社, 1980), pp.195-196.



판본의 영향과 사경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영산회상의 도상과 그 의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²

고려 후기의 영산회상도에는 당시의 불교신앙과 사상이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교의식과 송과의 대외교섭 상황 등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연구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회상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상뿐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고려 후기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1286년 <영산회상도>를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다¹. 리움본은 현전하는 영산회상도 중 시기가 가장 이른 기년명 변상도로서 남송대 판본화의 유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자, 13세기 말 14세기 초에 천태종이 불교교단을 장악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변상도이다. 목판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이 사경변상도로 어떻게 轉用되고 변화하였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여서 미술사적인 의미도 크다. 또한 고려 후기 영산회상도는 불교사상적인 측면에서 천태정토사상과 그 修行觀이 변상도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고려 후기 영산회상도 도상에 『법화경』의 성불사상과 『관무량수불경』

1 <영산회상변상도>
고려 1286년
종이에 인쇄
21.0×45.6cm
삼성미술관 리움

² 고려 후기의 판본이 남송 판본을 모각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도화, 「조선전반기 불경판화의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20-21; 文善姬, 「高麗時代『妙法蓮華經』寫經變相圖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85-92, 100-103; 「고려시대『妙法蓮華經』寫經變相圖의 도상 연구」, 『美術史學研究』264(2009. 12), pp.98-107. 문선희는 『法華經』7권본의 사경화와 판본화의 관계와 남송판본과의 영향관계 등에 관해 자세히 연구하였을 뿐 아니라 돈황의 법화경벽화가 송대에 판본으로 변안되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이하 『관경』)에 의한 정토신앙, 그리고 죄를 참회하는 참법의식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표이다. 그 결과 고려 후기 영산회상도에 관한 미술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학계나 불교학계에서 밝혀낸 고려의 역사와 불교사상이 미술품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밝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II. 법화경 간행과 영산회상변상도

1. 법화경 간행 배경과 천태종의 부흥

『법화경』을 널리 간행하게 된 고려 후기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관해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의 『법화경』(이하 리움 소장 『법화경』) 간행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리움 소장 『법화경』은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절첩본으로 세로 길이가 약 21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경문은 매우 작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小字(細字)本 형식의 『법화경』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손쉽게 꺼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讀誦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소자본 형식의 『법화경』의 간행은 북송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고려에 전래된 것으로, 『법화경』 독송이 고려와 송에서 모두 동일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행했던 불교의식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³ 『법화경』 독송에 관한 신앙적 의미는 뒤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책자를 펼치면 향 우측에 호법선신이라는 旁題 옆에 합장한 팔 위에 보봉을 엮고 서 있는 늙은한 모습의 韋馱天이 자리하고 있다⁴. 이어서 靈山會上의 설법장면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당대의 승려인 道宣이 쓴 '妙法蓮華經弘傳序'와 鳩摩羅什이 번역한 『法華經』 7권의 경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맨 끝에 刊記가 실려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묘법연화경의 요지는 심오하고 미묘하며 모든 경전 중에 최고로 존귀하다.

³ 이승희, 「송대 법화경 간행과 판본화의 고려 전래 연구」, 『제6회 원주 고관화 문화제 2차 국제학술대회』(2015. 7), pp.5-7.

⁴ 오른쪽 上方 끝부분에 護法善神이라고만 쓰여 있지만 투구와 갑옷을 입은 채 합장을 한 채 보봉을 양 팔 위에 놓고 있는 모습에서 위태천임을 알 수 있다. 위태천은 童眞菩薩이라고도 불리며, 조선시대 목판본 경전의 호법선신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승희, 「中國 宋代的 韋馱天 信仰과 圖像 고찰」, 『미술사연구』19(2005), pp.87-114.



1-1, 1-2
도1의 세부

知洪州事 副使官으로 洪州는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을 오관리에 해당한다.⁶ 발원자의 직책과 직급 등을 볼 때 이희려, 조운, 윤모 등 주 발원자 계층은 지방의 하위귀족이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고려 후기 불교문화의 형성에 호장을 비롯한 지방의 하위 귀족들이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개경의 중앙세력에서 소외되었던 무신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13세기 전반에는 중앙 불교 교단에 염증을 느낀 뜻있는 승려들이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근거지로 신앙결사를 만들어 함께 수행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신앙결사가 普照知訥(1158~1210)이 결사한 修禪社와 圓妙了世(1163~1245)의 白蓮結社이다. 특히 백련결사는 강진의 토호세력을 기반으로 결성하여 지방의 하위 귀족 계층을 비롯해 대중까지도 폭넓게 아우른 신앙결사로서 성장했다. 또한 백련결사의 제 4대주였던 眞靜國師 天頊(1206~?)은 경북 상주 공덕산에 米麵寺를 건립하고 東白蓮社를 결성했는데, 결사원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중에는 당시 유력한 문반출신 관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柳暉과 李藏用 등은 최씨 집권을 붕괴시킨 직후 중책을 맡았던 문관들로서, 원 간섭기에는 왕실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백련결사의 정신이 고려의 왕실과 귀족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⁷

1284년 忠烈王(1236~1308, 재위 1274~1308)과 齊國大長公主(1259~1297)가 주도하여 수도 개경에 왕실의 원당으로서 妙蓮寺를 창건한 일은 백련결사가 정신이 중앙에 이식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묘연사는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고 세운 국청사와 함께⁸ 대표적인 천태종 사찰이다. 묘연사의 창건은 13세기 후반~14세기 불교문화의 형성에 천태사상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법화경』이 간행된 해인 1286년은 묘연사를 창건한 지 2년이 지난 해이다. 특히 ‘묘법연화경의 내용이 심오하고 미묘하며 경전 중에서 최고로 귀하다는 사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설법하면 그 공덕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 리움 소장 『법화경』의 간행은 백련결사에서 묘연사의 창건으로 이어지는 수도 개경에서의 천태종단 정착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元皇帝와 忠烈王과 제국대왕공주의 수명장수와 연경에 있는 宗室의 安寧을 기원하는 축원구에는

만일 한 사람이라도 능히 뜻을 알고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 그 공덕은 매우 클 것이다. 하물며 방편으로 대중에게 널리 베풀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경전은 제자 辛勤이 신봉하던 것을 前戶長 李稀呂와 함께 법문을 깨닫기를 바라며, 어렵게 판목을 구하여 손으로 직접 조각하고 널리 유통시킨 것이다. 황제의 만년과 국왕공주의 천추를 기원하며, 연경의 모든 종실과 조정이 음양으로 평탄하고 부처님이 매일 한결같이 빛나고 법륜이 영원토록 굴러 법계의 함령이 모두 함께 보리를 증득하기를 기원한다. 지원 23년(1286) 무오년 오월일에 도인 成敏이 기록하고, 判官外仕郎 良醞令 曹胤과 知洪州事 副使官 句學事殿中內給事 尹珩이 함께 발원하였다.⁵

위의 간기는 道人 成敏이 쓴 것으로, 『법화경』을 간행하여 공덕을 쌓고 더 나아가 대중에게 유포시키려 했던 발원자들의 신심을 보여준다. 원래 『법화경』은 辛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前戶長 李稀呂와 함께 판목을 손수 구하고 경문을 새겼다고 하였다. 함께 발원했던 曹胤은 양온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경관의 녹봉 기준(1076년 기준)에 16석 10말이라는 것으로 보아 하위 직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尹珩은

5 “夫蓮經之旨 甚深微妙 於諸經中最尊最上 若能竊爲一人說經一句 其功德涯 何況方便廣施於衆 是用弟子辛勤信奉 與前戶長李稀呂 同轉願輪 躬板而手彫 以廣流通/所以 皇帝萬年 國王宮主 各保千秋 諸閣衍慶 宗室凝休 陰陽調朝野 佛日恒明 法輪永轉 法界含靈 共證菩提 至元二十三年 丙戌 五月日 道人成敏誌 同願 判官外仕郎良醞令曹胤 知洪州事副使官句學事殿中內給事尹珩”, 『高麗, 영원한 美』(호암갤러리, 1993), p.238의 도64 刊記 재인용.

6 兵部尙書와 戶部尙書의 녹봉이 246석 10말(斗)로 정해진 사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高麗史 西京官祿).

7 許興植, 『眞靜國師와 湖山錄』(民族社, 1995), pp.13-39.

8 국청사는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그의 어머니 인애왕후가 발원하여 건립된 사찰로서 충선왕은 1308년에 즉위하자마자 국청사를 중수하였다. 이어 충숙왕은 1315년에 국청사 금당을 중수하고 경찬을 베풀기도 하였다. 閔漬, 「國淸寺金堂主釋迦如來舍利靈應記」, 『東文選』 卷68.

고려왕실이 주축이 된 묘연사 창건과 이 『법화경』 간행과의 연관성이 느껴진다.

묘연사의 창건은 고려 후기 귀족들의 신앙 경향이 선종보다 천태 쪽으로 경도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충숙왕대(재위 1332~1339) 묘연사를 수선하면서 남긴 「妙蓮寺重興碑」에는 13세기 후반 14세기 전반 천태종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개산조는 사자암의 노숙 홍서이고, 두 번째가 원혜국사이고 삼대가 무외국사(?~1318)로, 무외국사대에 와서 배우는 사람이 더욱 몰렸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무외국사가 주관하던 시기의 충선왕께서는 더욱 예절을 존중하여 선교의 다른 절들이 감히 바라보질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⁹ 이 기록들은 충렬왕, 충선왕까지 천태사찰인 묘연사가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선종, 교종을 아울러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불교 교단의 상황변화를 통해 볼 때 묘연사를 창건하면서 제시했던 불교사상적인 이념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의 귀족들의 새로운 불교문화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충렬왕은 제국대장공주와 함께 부처를 존신하였는데 불교에 들어가는 길은 『법화경』이 가장 심오하며 불경의 뜻을 창달한 것은 <천태소>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하여 좋은 땅을 가려 사를 세우고 『법화경』을 번역하여 도를 찾고 <천태소>를 강론하여 경전의 뜻을 연구했으니 장차 천자에게 복을 받고 종묘에 복이 내리게 하려 한 것이었다.¹⁰

묘연사중흥비에는 『법화경』이 어떤 다른 경전보다 심오하며天台疏는 불경의 뜻을 거리낌이나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해석하였다고 적혀있어, 당시 천태소에 대한 교학적 연구가 왕과 국가의 복을 내리는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태소는天台智顓(538~597)의 대표적인 경전 해석서를 말한다. 천태소는天台三大部和天台五小部로 나뉘는데, 천태삼대부는 『법화경』을 이론적으로 해설한 『法華玄義』, 『法華文句』, 실천적 수행문을 역설한 『摩訶止觀』이다. 천태오소부는 『觀世音菩薩普門品玄義』, 『觀世音菩薩普門品玄疏』, 『金光明經玄義』, 『金光明經文句』, 『觀無量壽佛經疏』(이하 『觀經疏』)로, 각각 『법화경』 「觀世音普門品」, 『金光明經』, 『관경』의 주석서이

⁹ 李齊賢, 「妙蓮寺重興碑」, 『東文選』卷118, “... 開山者 師子庵老宿洪恕 實惟其人 圓慧國師主盟 結社 三傳而至 無畏國師 學者益臻 ... 凡所以光護院門 禪教列刹 莫敢望焉 ...”.

¹⁰ 李齊賢, 위의 책, “... 妙蓮寺 我忠烈王與齊國大長公主尊信佛氏 暢經之義 天台疏悉備 卜勝地立精舍 繙經以求其道 講疏以研其義 將以祝釐於天子 邀福於宗祏者也 ...”(밑줄은 저자 강조, 이하 동일).

다.¹¹ 이 중에서 묘연사의 창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관경소』의 연구가 고려불화에 미친 영향은 13~14세기 전반에 그려진 4점의 <관무량수경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²

리움 소장 『법화경』 간기에는 고려 후기 역사적 변혁 속에서 백련결사를 시작으로 천태종이 부흥하고 개경의 귀족사회와 불교교단을 장악하게 된 배경을 담고 있다. 한 가지 13세기 후반 이후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묘연사와 백련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교학적인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¹³ 강진에서 백련결사가 시작할 때에는 “法華懺法 求生淨土”을 내세워 누구나 참회를 하면 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신앙으로써 대중을 포섭했다면, 천태교단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이제까지 등한시했던 교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염불과 참법 등을 통해 정도왕생할 수 있다는 대중적인 메시지보다는 천태사상에 근거한 대승적인 차원의 성불과 보살도가 강조된 좀더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갖게 된 신앙에 대한 태도는 발원문에 쓰인 “법계의 모든 含靈이 모두 보리를 증득하기를 바란다”라는 문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영산회상변상도의 도상과 확산

리움본 <영산회상도>는 영취산에서의 설법장면을 묘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취산을 상징하는 산수표현이 배제되어 있다¹⁴. 빈 공간을 배경으로 중앙에 높은 대좌 위에 부처님이 결가부좌한 채 설법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10대 제자가 에워싸고 있다. 석가여래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상서로운 보개의 양 옆에는十方諸佛이 5불씩 나뉘어 구름을 타고 강림하고 있다. 5불의 옆에는 각각 석가여래의 협시보살인 문수와 보현보살이 각각 사자와 코끼리 위에 앉은 채 구름을 타고 강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로 다른 구름 위에 앉은 2위의 보살이 따르고 있다.

¹¹ 김은희,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妙法蓮華經 천태삼대부, 천태오소부,天台四教儀」, 『금강』 233(2004. 6), pp.41-43.

¹² 이승희, 「고려 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美術史學研究』279·280(2013. 12), pp.5-34;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20(2015. 10), pp.39-73.

¹³ 강호선은 妙蓮寺는 경전을 절요하기보다는 주석서를 편찬하는 등 교학연구에 치중했고, 천태종의 개조로서 의견을 높이 평가했던 점은 백련결사의 정신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姜好鮮, 「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충렬·충선왕대 묘연사계를 중심으로」, 『보조사상』16(2001), pp.351-356.

하단에 골고루 자리잡고 있는 청중은 설법을 듣기 위해 석가모니불을 향해 움직이는 듯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석가불과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사천왕, 긴나라, 가루다, 용왕 등의 팔부중과 帝釋의 무리, 日宮天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명칭은 방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가모니불가 결가부좌하고 있는 대좌 아래에는 보탑이 용출하고 있으며 양 옆에는 보탑을 향해 앉아 예경을 드리는 阿闍世王과 사리불이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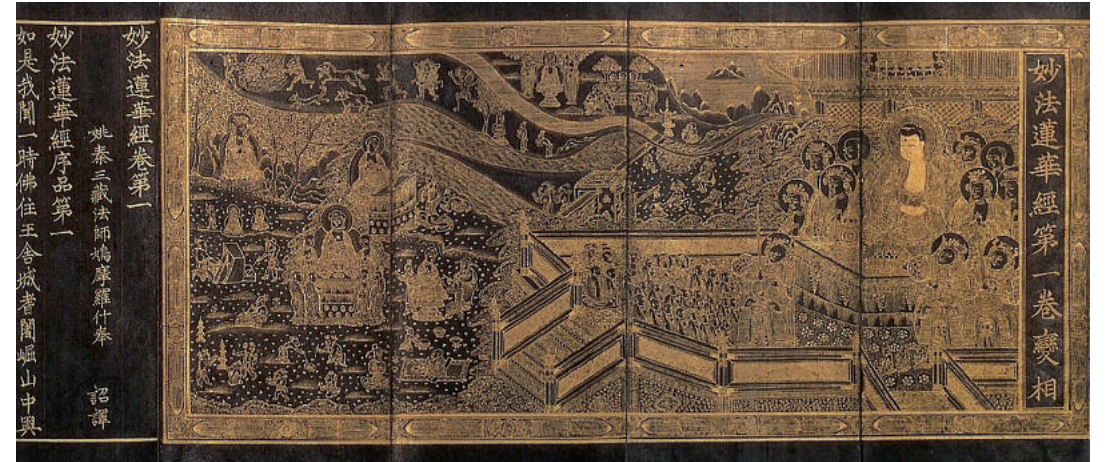
『법화경』 「서품」의 내용은 부처님의 설법과 문수의 설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이 왕산성 밖 기사굴산에 머무실 때 큰 비구의 무리 만 이천명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성자, 비구니, 보살 팔만 명, 석제환인과 이만 천자, 팔부중, 안사 세왕이 부처의 발 밑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편에 앉아 있다. 이처럼 사부대중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더니 이에 세존께오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한 뜻을 지닌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護念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후 결가부좌하사 無量義處 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부처님이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한 줄기 光明을 놓으시어 동방 만 팔천 세계를 비추니 밑으로는 지옥부처 저 땅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온갖 부처님을 뵈고, 이들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시는 모습과 부처님 사리를 모신 칠보탑의 일으킴도 보인다. 이에 미륵보살이 放光의 의미를 문자 문수보살이 『법화경』을 설하실 전조임을 밝히고 있다.¹⁴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품」은 기사굴산에서 부처님이 설법한 후 無量義處三昧에 들었다는 내용과 삼매에 든 부처님에게서 광명이 나온 이유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전조임을 문수사리의 설법으로 밝히는 2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2가지 내용 중 전자는 <영산회상도>를 통해 형상화되었다면 후자의 내용은 권1의 <법화경변상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

리움본 <영산회상도>에 표현된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불은 기사굴산에서 설법을 마친 후 '무량의처삼매'에 든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무량의처삼매'는 끝없는 가르침을 확립한다는 이름의 삼매를 의미한다. 또한 이때 '부처가 설법한 대승경을



2
<법화경변상도>
『법화경』 권1
고려 1315년
감지에 금니
일본 다이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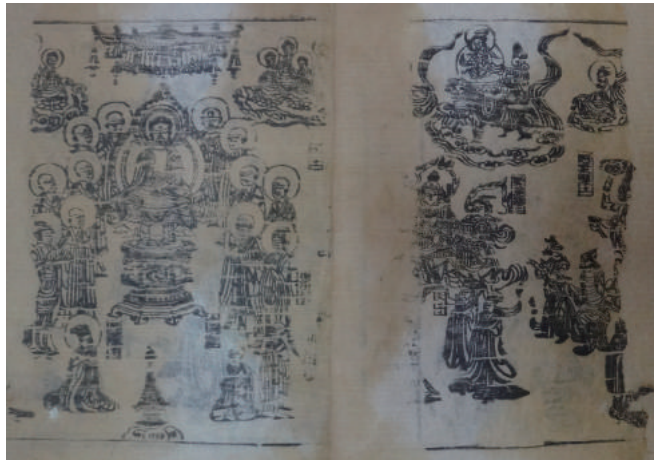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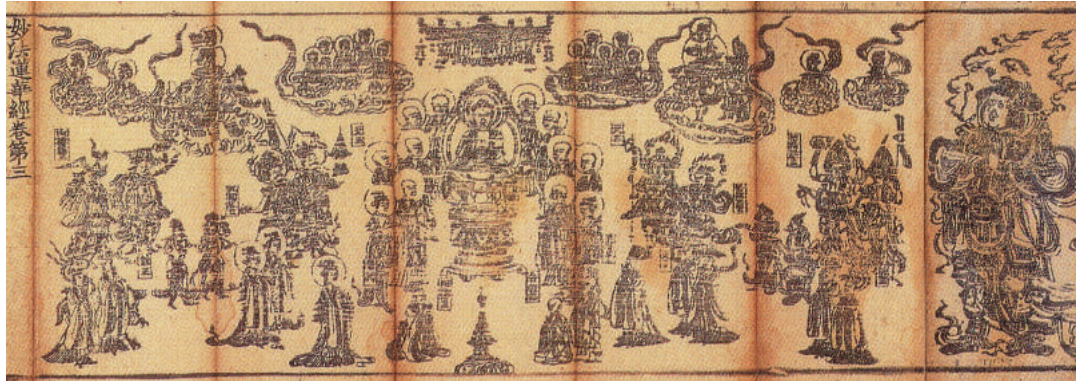
무량한 뜻을 지닌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칭한 것은 『법화경』에서 추구하는 '成佛'을 위한 설법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대좌 아래에 용출하는 보탑도상은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해주는 다보탑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¹⁻². 그러나 「서품」의 이야기 전개상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 등장하는 보탑은 실제로 『법화경』 각권변상도 중 1권에 부처님의 眉間的 백호상에서 나온 광명 속에 표현된다². 따라서 부처가 삼매에 들어 있는 상황에서 보탑이 용출하고 있는 것은 앞서 열반에 든 이후에 등장하는 보탑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 의미는 당시 성행했던 천태사상과 신앙과 의식을 먼저 살펴본 후 IV장에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리움본 <영산회상도>와 같은 형식이 고려 후기에 상당히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원주 고관화 박물관³, 구인사박물관과 慶州 祇林寺 소장 <영산회상도> 단편을 통해 확인할 가능하다⁴. 경주 기림사 소장 <영산회상도> 단편은 조선 중기의 기림사 비로자나 불상에 안립되어 있던 복장물로서, 목판을 반복하여 인쇄함으로써 나타나는 뭉개짐 현상을 볼 때 이와 같은 영산회상도 형식이 조선 초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초기의 작품 중에는 리움본과 거의 같은 형식이지만 보탑의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다⁵. 1404년 상원사 <영산회상도>에서 보탑은 향좌 측 상단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보탑이 땅에서 용출하는 형상과 차이를 보인다.

리움본과 같은 영산회상도 형식이 사경변상도에 변안될 때는 목판화의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단순한 필선만을 활용하여 그리거나 고려 후기 사경변상도의 독특한

¹⁴ 『法華經』, 「서품」, T.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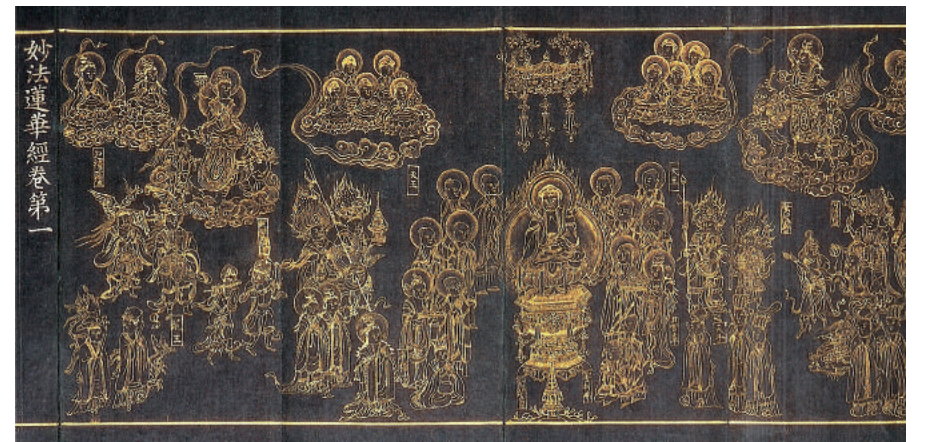
3
 <영산회상변상도>
 고려 말 종이에 인쇄 원주 고관화박물관

4
 <영산회상변상도>
 고려 말~조선 초 종이에 인쇄 경주 기림사

5
 <영산회상변상도>
 소자본 『법화경』
 조선 1404년
 종이에 인쇄
 원주 상원사박물관



6
 <영산회상변상도>
 『법화경』권1
 고려 1332년
 감지에 은니
 31.6×11.0cm
 일본 사가
 나베시마후코우카이



장식적인 화법으로 그린 경우로 나뉜다. 일본 사가현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나베시마후코우카이(鍋島報効會) 소장의 1332년의 <영산회상도>가 전자의 예로서¹⁵ 금니의 유려한 필선으로 목판본 <영산회상도>의 화면구성과 방제까지 똑같이 모사하였다¹⁶. 그러나 사경의 바탕색인 청색 위에 금니로 그려진 변상도는 단순하면서도 회화적인 고아한 품격이 느껴진다.

목판본 <영산회상도> 형식을 고려 사경양식으로 변안시킨 작품이 리움 소장 <영산회상도>이다¹⁷. 『법화경』권6의 변상도임에도 불구하고 권6의 내용을 변상도로 그리지 않고 <영산회상도>를 그린 것은 이례적이다. 필선의 강약을 조절하여 인물들을

섬세하고 유려하게 표현한 점이나, 화면의 여백을 금니로 빈틈없이 장식한 점, 변상도의 테두리를 고려 후기 사경화의 전통대로 금강저로 장식하고 있는 점 등에서 고려 특유의 화려한 사경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이제까지 살펴본 리움본 <영산회상도>와 같은 변상도는 고려 후기에 상당히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변상도가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 남송판본이 유입되어 확산하는 데 무인집권세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¹⁵ 고려시대 『法華經』은 대부분 7권으로 나누어 사경하는 데 비해 이 사경은 매우 드물게 8권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권희경, 『고려의 사경』(글고운, 2006), pp.379-385.

¹⁶ 문선희, 앞의 글(2009), pp.24-28.



7
 <영산회상변상도>
 『법화경』卷6
 고려 14세기
 감지에 은니
 21.0×45.6cm
 삼성미술관 리움

Ⅲ. 남송 법화경 판본의 유입과 법화경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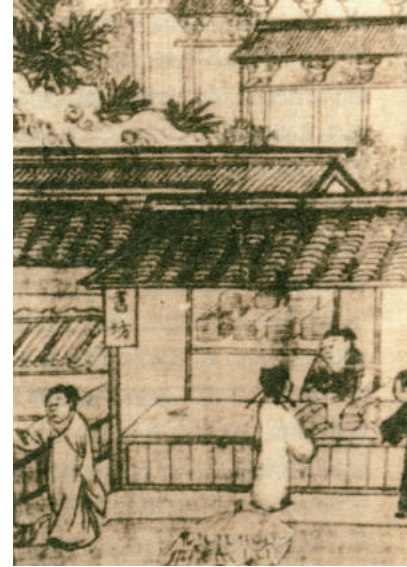
1. 남송판본의 유입과 무인집권세력의 역할

중국에서 『법화경』이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시기는 북송대이다. 오대~북송 초 인쇄기술의 발달과 함께 출판업이 성행하게 됨에 따라 서적을 발간하고 판매하는 書鋪가 출현하였다⁸. 민간 자본으로 생겨난 서포는 대중을 상대로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많이 읽히는 책을 위주로 간행했을 것이고 불교서적만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절강성 항주 지역의 인쇄기술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 이곳에서 출판된 서적은 12~13세기 경 고려와 일본 등지로 유입되었다.¹⁷ 이러한 상황은 목판 <영산회상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남송대의 고려 유입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상원사 소장 <영산회상도>이다¹⁵. 이 변상도는 남송 소흥 연간(1131~1163)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교토 운류인(雲龍院) 소장 <영산회상도>와 화면구성과 도상이 같다¹⁹. 운류인본의 흥전서가 끝나는 곳에는 ‘臨安府修文坊相封王八郎經書鋪’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는 절강성 임안 즉 항주 지역의 修文坊 王八郎家の 經書鋪에서 간행했다는 의미이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經書鋪는 경전을 주로 취급했던 서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국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에는 운용원과 같은 도상이지만 ‘臨安府衆安橋賈官人

¹⁷ 이승희, 앞의 글(2015. 7), pp.1-9.

¹⁸ 『東アジアの佛たち』(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p.281 圖198 참고.



8
 장택단 <청명상하도>
 '서포' 부분
 북송 1120년경
 북경 고궁박물관

經書鋪'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항주의 衆安橋 賈官人 經書鋪에서 판각하였다는 것이다.¹⁹ 이 두 판본화를 통해 동일한 형식의 판각본이 항주 지역의 여러 서포에서 판각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리움본과 같은 판본화는 일본 도쿄 다이도큐기념문고(大同急記念文庫)에 전한다¹⁰. 높고 화려한 대좌에 걸가부좌한 석가불의 좌우에 정법하고 있는 비구와 사천왕, 팔부중과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騎獅文殊菩薩과 騎象普賢菩薩, 十方諸佛 그리고 석가대좌 아래의 보탑과 阿闍世王과 사리불, 그리고 화면의 여백을 충분히 살려 적절히 배치한 화면의 구성은 거의 일치한다. 다이도큐기념문고본의 牌記에는 仁宗皇帝의 찬문이 있는데, 송대의 인종은 1022~1063년까지 재위했던 북송대의 황제이고, 元대의 인종은 1312~1320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이다. 운류인본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판본은 북송 인종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송대부터 원대의 어느 시기엔가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일본 교토 운류인본과 도쿄 다이도큐기념문고와의 비교를 통해 고려 후기 영산회상도는 남송대 판본이 고려에 유입되어 모각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남송대 판본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남송대 판본이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여러 정황상 12세기 중엽 경으로 추정되지만, 이와는 달리 고려에서는 13세기 후반 경부터 보인다. 이처럼 남송대 판본이 일본과 고려에 전래된 시기 혹은 나타나는 시기가 다른 것은 12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가운데 고려와 일본이 처한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불교교단의 성격도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남송대 『법화경』 판본이 유입되어 고려사회에 유통되었던 배경에는 백련결사운동으로 촉발된 천태종의 부흥이 중요한 이유를 차지한다. 그러나 백련결사의 확산이 고려 후기의 주 정치세력인 무인집권자들의 결탁없이 불가능하였듯이 남송 『법화경』 판본의 유입과 유통은 무인세력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

¹⁹ “臨安府衆安橋南家東開經書鋪賈官人宅人造”, 불국선사 惟白(11~12세기)의 찬문이 있고 서문은 中書舍人張商英(1043~1121)이 발문을 썼다(『東アジアの佛たち』(1996), p.263의 圖137). 『中國版畫史圖錄』上(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圖20과 周心慧 主編, 『新編 中國版畫史圖錄』第2冊(北京: 學苑出版社, 2000), p.77에서 제작시기를 121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²⁰ 卷末에는 ‘方至方再明刊’이라는 각명이 있는데, ‘방지’가 각했던 판본을 복각한 본이라는 의미로 추정된다. 『東アジアの佛たち』(1996), p.281 圖199 참고.



9
 <영산회상변상도>
 小字本『法華經』
 남송 소흥 연간(1131~1163)
 종이에 인쇄
 19.8×1736.5cm
 일본 운류인

으로 생각된다.

무인집권층은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 소장의 초조장경판이 고종 19년(1232) 소실되자, 외침을 물리치고자 발원하여 고종 23년(1236)부터 고종 38년(1251)까지 16년에 걸쳐 완성하는 등 판각사업을 주도하였다.²¹ 이 시기에 무인집권세력은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 경전을 판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崔瑀(?~1249)이다. 최우는 송대 선종의 한 유파인 임제종승인 戒環이 要解한 『법화경』을 판각하였고,²² 백련결사가 보현도량을 개설할 때에 강본으로 사용했다.²³ 또한 최우의 사위였던 鄭晔은 남해에 개인 원찰을 운영하면서 대장경 외에 1236년부터 1246년에 걸쳐 寺刊板으로 『묘법연화경』(1236년 간행) 등을 개인적으로 간행하였다. 간행기에는 1200년에 천태종승인 鍾孝(1151~1214)가 쓴 『낙방문류』가 인용되어 있어 무인집권기에 남송의 불교 전적이 꾸준히 고려에 유입되고 있었고²⁴ 그 유입과정에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무인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動因이 무엇이었는지 당시의 성행했던 『법화경』에 의한 정토신앙과 불교의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千惠鳳, 「韓國의 典籍」, 『國寶』(한국 브리태니커회사, 1989), p.220.

22 당시 강본으로 사용했던 『법화경』은 1126년(靖康 1)에 완성된 것으로, 1127년에는 『楞嚴經』에 관한 주석도 완성하였다. 계환은 溫陵(복건성 泉州) 開元蓮寺의 승려로서 탄언이 중국 임제종 계통의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戒環解 『楞嚴經』이 고려로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趙明濟, 「高麗後期 戒環解 楞嚴經의 盛行과 思想史的 意義」, 『역사와 세계』12(1988), pp.125-167.

23 高翊翔, 「法華經 戒環解의 盛行來歷考」, 『佛敎學報』12(1975), pp.171-198.

24 정병삼, 「고려 후기 鄭晔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24(2009), pp.403-436.



10
 <영산회상변상도>
 小字本『法華經』
 남송~원
 종이에 인쇄
 21.0×8.8cm
 일본 다이도큐기념문고

2. 법화경 신앙과 정토행의: 禮懺, 讀誦, 寫經

백련결사에서는 '法華三昧 求生淨土'이라 하여 정토왕생을 위한 실천행으로서 법화삼매참법을 강조하였다.²⁵ 『法華三昧懺儀』는 天台智顛가 지은 의식집으로 眼, 耳, 鼻, 舌, 身, 義 6가지 근본에서 비롯된 죄악을 참회하고 『법화경』에 의지하여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천태지지의 『법화삼매참의』는 고려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고쳐져 널리 수행되었다. 백련결사의 2대 법주인 天因(1205~1248)이 『법화삼매참의』를 간략하게 변형시킨 『法華懺法禮文』을 지었으며,²⁶ 1315년 정오국사는 국청사 금강주불의 감실과 금강대를 완성한 낙성회를 개최하면서 『法華禮懺儀』를 새로 지어 3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 법화예참을 행했다고 한다.²⁷ 1378년(禰王 4)에는 靈巖寺 주지 妙慧가 간행한 『法華三昧懺助宣講儀』(卷下)를 지었는데 이 의식집은 현재에도 전한다.²⁸

25 崔滋,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并序」, 『東文選』卷 117, "... 以壬辰夏四月八日 始結普賢道場 修法華三昧 求生淨土 一依天台三昧儀 長年修法華懺 前後勸發 誦是經者千餘指 受四衆之請遊化 ..."에도 기록되어 있다. 天頊이 지은 「壬辰年普賢道場起始疏」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天頊, 「壬辰年普賢道場起始疏」, 『湖山錄』卷4, "... 沉澗三觀兮 立普賢道場 導一切 日期彌陀淨刹 ... 俾勤淨行於六時 ...". 주89 참고.

26 「法華懺法禮文」은 「彌陀讚」과 함께 『靜明國師後集』에 실려 있다. 예참문의 내용은 리영자 역주, 「萬德山白蓮社 第二代 靜明國師後集」, 앞의 책(2009), pp.319-320. 李永子, 「天因의 法華懺法의 展開」, 『한국천태사상연구』(1983), p.256.

27 閔漬(1248~1326), 「國靑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東文選』卷68. 정오국사의 업적에 관해서는 許興植, 「無畏國師 丁午의 事業과 繼承」, 앞의 책(1995), pp.41-63 참고.

28 祇林寺毘盧舍那佛腹藏典籍 중의 하나로 지지의 『法華三昧懺儀』에 대한 章疏 중에서 유전된 것을 간행하여 만의사에 안치한 것이다. 남권희, 「13세기 천태종 관련 고려불경 3종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19(1997), pp.3-65. 이기운, 「고려의 법화삼매 수행법 재조명 : 새로 발견된 법화삼매 수행집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화저널』24(2011년 봄/여름) pp.139-169.

「壬辰年普賢道場起始疏」에서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듣는 이는 보리의 授記를 받는데, 하물며 (법화)삼매를 닦는다면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정토왕생을 추구하는 법화삼매가成佛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의식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고려 후기 『법화경』신앙은 정토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왕생을 위한 참법수행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묘 요세를 비롯하여 天頤이나 天因, 14세기의 천태승인 了圓에 이르기까지 천태승려들은 참법수행 외에도 『법화경』의 讀誦을 정토왕생을 위한 중요한 실천행으로 강조하였다.

『蓮華經』에 몰두하였고 그윽한 곳에 숨어 살면서 가구처럼 (늘) 옮기를 기약했지요. 송나라 승이었던 可久는 늘 『법화경』을 외운 결과 정토에 왕생하였다.³⁰

紹巖法師(898~970)가 『법화경』 2만번 암송하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였는데 갑자기 땅에서 연꽃이 났다.³¹

위의 두 사례는 眞靜國師天頤이 쓴 『湖山錄』에 실린 것으로 고려에 유입된 송대 왕생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음의 네 가지 사례는 천책의 다른 저서인 『海東傳弘錄』에 쓰인 것을 了圓이 발췌하여 『法華靈驗傳』(1378)에 실은 내용이다.³²

少卿 최린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법을 듣게 하여 해탈을 얻게 해 준 후부터 『법화경』을 독송하였다.³³

상주의 호장 김의균은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기를 즐겨하였다. (중략) 세월이 무상하여 죽은 뒤에 산기슭에 장사지냈더니, 무덤 위에 연꽃이 피었다.³⁴

²⁹ 天頤, 「壬辰年普賢道場起始疏」, 『湖山錄』卷4, “... 凡聞一句者 尙受菩提之預記 況修三昧 則焉知刹那之頓成 ...”.

³⁰ 天頤, 「又寄柳平章 并序」, 『湖山錄』卷3, “... 蓮經偏信受 意欲居堀胸 常誦期可久 宋高僧可久 常誦蓮經往生西方 ...”.

³¹ 天頤, 「用前韻言懷示同抱」, 『湖山錄』卷3, “... 紹巖法師 誦法花二万部 永生安養 ...”.

³² 了圓, 『法華靈驗傳』序文, “法華靈驗傳 有大唐朝藍谷沙門慧詳所撰 弘贊傳十卷 大宋朝四明沙門宗曉所撰 現應錄四卷 又有本朝眞淨國師所撰 海東傳弘錄四卷 今歷覽此三傳抄錄其中 最爲奇特事 合成二卷 以勸發後來 兩卷合百七奇異”.

³³ 天頤, 「堪歌崔牧伯之慶會」, 『海東傳弘錄』(了圓, 『法華靈驗傳』에 재수록), “少卿崔 ... 公自是常讀蓮經翌年秋 召爲右承”.

나이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과 함께 法華社를 조직하여, 다달이 육재일에 각기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읽고 해석하였으며, (중략) 15일이 되면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아미타여래에게 공양하고 모두 모인 원에서는 재를 베풀고 밤을 새워 다 같이 정토에 회향하고자 정진했다.³⁵

송경의 낙타교 동쪽 마을에 蓮花院이라는 절이 있었다. 성남리 청신사들이 法華社를 조직하고, 다달이 육재일에 여기 모여서 『법화경』을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뜻이 미묘한 『법화경』에 의지하는 소리로 정토에 회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연화사는 寶岩社와 서로 낮고 못함이 없었다.³⁶

위의 인용들은 고려 사람들이 행했던 정토수행을 적은 글로서, 『법화경』의 독송이 정토회향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法華社와 蓮花院과 같은 소규모 결사를 조직하여 재를 올리고 『법화경』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기도 하는 모임을 지속했다는 사실과 少卿 최린, 호장 김의균 등의 존재로 미루어, 13세기 후반경에는 『법화경』에 의한 정토왕생신앙이 귀족과 지식계층에 깊이 침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업을 쌓아가는 수행의 과정이자 공덕을 쌓기 위한 신앙적인 의례행위로 인식했던 사경도³⁷ 정토왕생을 위한 중요한 행으로 여겨졌다. 정토왕생을 위해 『법화경』을 사경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는 了圓의 『法華靈驗傳』에 실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죽은 아내를 위해 『법화경』을 사경할 종이를 사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나³⁸ 妙法蓮華經의 제목인 ‘妙’자를 쓰자마자

³⁴ 天頤, 「菑生於堪舌根」, 『海東傳弘錄』(了圓, 『法華靈驗傳』에 재수록), “尙州戶長金義鈞 常樂讀法華經 ... 葬於山麓 蓮華發於塚上”.

³⁵ 天頤, 「寶岩徒之或講或疑」, 『海東傳弘錄』(了圓, 『法華靈驗傳』에 재수록), “... 與諸退老并散逸四十餘人 同結法華社 每月六齋日各持科本蓮經 ... 至十五日 則精設妙饌 供養彌陀 合院設齋 過夜精勤 ...”.

³⁶ 天頤, 「蓮華院之若讀若說」, 『海東傳弘錄』(了圓, 『法華靈驗傳』에 재수록), “... 松京駱駝橋東巷有一招提 曰蓮華院 凡城南里 清信士輩 結法華社 每月六齋日 同會干此 若讀若說 其所以憑仗妙乘 廻向淨土者 多與寶岩社相爲甲乙 ...”.

³⁷ 「法師功德品」, 『法華經』, p.48b16-17, “... 若善男子善女人 受持是經 若讀若誦若解說若書寫 成就八百萬功德 ...”.

³⁸ 了圓, 「買紙之時天堂已化」, 『法華靈驗傳』卷上 “... 乃即喚其夫 令爲寫經 其夫急與買紙 付人令寫 鄉人至前期日 往到水邊乃別見他 嫗謂鄉人曰 君是前所囑寫經者乎 鄉人曰是也 嫗曰前者婦人 夫爲買紙之日 已往生天 ...”.

좋은 곳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나³⁹ 법화경의 제목을 쓰자마자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등은 정토왕생을 위한 『법화경』 사경의 공덕이 얼마나 강했던 것인가를 말해 준다.⁴⁰

실제로 『법화경』 사경의 발원문을 보면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현세구복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인들의 정토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공덕을 쌓기 위한 신앙행위보다 삶을 마친 후 안락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표1은 13세기 후반부터 고려 말까지 조성되었던 기년명 『법화경』사경 17점 중 발원문이 없거나 法華讚과 같은 내용을 실은 3점을 제외한 14점의 발원문을 발췌한 것이다. 거의 모든 발원문에는 사후의 淨土往生과 追善을 기원하고 있는 개인적인 발원내용을 담고 있다.

IV. 예참의식과 영산회상변상도의 아사세왕과 보탑도상

이제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리움 소장 <영산회상도>의 하단에 표현된 보탑과 보탑을 향해 예경을 드리는 阿闍世王과 舍利佛 도상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보탑은 『법화경』 「見寶塔品」에 근거해 본다면 석가여래가 설하고 있는 『법화경』이도1-2 진실임을 증명하는 상서로운 불탑이다. 석가여래는 다보여래의 탑 속에서 자신의 입멸이 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자신의 입멸 후에 『법화경』을 부촉해야 할 사람을 모으고 있어 미래에 『법화경』의 전승이 불탑을 중심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¹ 이처럼 다보탑은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상서로운 존재이지만, 이 변상도에서는 오른쪽에 자리한 아사세왕과 사리불을 통해 달리 해석할 수 있다.

阿闍世王은 『관경』의 주인공으로 중인도 마갈타국의 왕세자로 석존에 귀의한 후, 교단의 외호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흔히 ‘未生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원한을 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未生怨에 관한 이야기는 『大般涅槃經』에 나온다. 부왕인 빈비사라가 늙도록 후사를 두지 못해 신에게 기원하고

39 了圓, 「妙字始成 便生勝處」, 『法華靈驗傳』卷上, “... 寫經題妙字始成 便生勝處...”.

40 了圓, 「題目纔寫已脫冥司」, 『法華靈驗傳』卷上, “... 爲寫法華經 必應得免 堅去急報前 願經寫裝畢 責而就廟 神出如故 以事告之 神曰師爲寫經題目 彼已脫去 今生人間 然此處不潔...”.

41 平川彰 외 2인, 차차석 譯, 『法華思想』(경서원, 1996), pp.41-52.

표1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에 조성된 『法華經』 사경의 발원문

	발원문		
1	廉承益은 원컨대 제가 목숨이 다할 무렵에 일체 모든 장애가 다 없어져서 아미타여래를 직접 뵈옵고, 서방정토에 왕생하여지이다. “廉承益 願我臨歿欲命終時 盡除一切諸障礙 面見彼阿彌陀 卽得往生安樂刹”	1283년 경	국립중앙 박물관
2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중략) 나는 세상마다 항상 길상을 증득하여 부처님 뵈옵고 법을 들어 무생법인을 깨달아 모든 유정을 제도하며 (후략) “先亡父母離苦得樂...世世生生常得吉祥 見佛聞法 悟無生忍 度諸有情...”	1294년	일본 寶巖寺
3	그 여파로 우리 부부가 현세에 수복을 더하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 태어나면 돌아가신 부모와 법계의 사생이 같이 樂刹에 적게 하소서 “倩書手寫成金字蓮經七軸伏願...亨國千秋彼及己身嘉 耦現增福壽 當生安養 先亡父母法界四生 同霑樂刹耳”	1311년	일본 京都博物館
4	대저 법화경의 뜻은 심히 깊고 미묘하여 저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수승하도다. 약왕보살본사품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또는 사람을 시켜서 쓴다면 얻은 바 공덕이 부처님의 지혜로써 얼마인가를 헤아려도 그 끝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 이렇기 때문에 제자가 이 법문에 깊이 信根을 심어서 널리 檀緣을 권하여 공경스럽게 사람을 빌어 金字로써 법화경 일부를 사상하고 이 공덕으로써 받들어 축원하나니 “蓮經之旨深微妙於諸經中最尊最勝/藥王菩薩本事品云若人得聞此法華經若/自書若使人書所得功德以佛智慧壽量多/少不得其邊是故弟子於此”	1315년	일본 大乘寺, 天倫寺
5	상호군 벼슬을 사양한 최유륜이 현세에는 수복을 증장하고 내세에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 “特爲己身現增福壽當生淨界之願 債人敬寫蓮經七卷亦...上護軍致仕 有倫 立願”	1325년	일본 羽賀寺
6	홍산군 호장 이신기는 특별히 엄시의방수도삼승 先亡聖善을 위하여 두 다리는 九蓮을 밟고 널리 自他に 미쳐서 현재 미래에 한량없는 복을 얻기를 소원하여 (후략) “鴻山郡戶長李 臣起 特爲嚴特義方壽倒三松 先亡聖善足躡九蓮善 及自他現在未來 獲福無邊之願...”	1330년	삼성미술관 리움
7	법계의 함령이 정토에 태어나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같이 불사를 지어 하나도 남김없이 제도한 연 후에야 끝나거니와 (후략) “未來際同作佛事無一可度然後乃已異見聞 十方施主同起佛種同斯願海...”	1332년	일본 佐賀博物館
8	옛날에 慧恭이 법화경1부 敬誦에 天花가 내리고 山龍은 妙法蓮華經 제목만을 읊어서도 지옥을 다 공하게 하였으니, (중략) 다만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공경히 (법화경)1부를 필사하여 특별히 돌아가신 아버지와 여러 세상의 親緣이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할 뿐입니다. “昔慧恭之敬誦一部遂感 天花亂墜山龍之唱首題名而使地獄皆空...但發難遭之相故敬寫一部特爲先父累劫親緣超生淨土云耳”	1366년	서울 朴興慶
9	은으로써 글자를 쓰니 과보는 극락세계에 두고 선업을 더욱 밝혀 잠깐 사이에 佛道를 이루리라. “以銀爲字 果在蓮座 白業更明 舉手低頭 已成佛道”	1373년	국립중앙 박물관
10	우리 돌아가신 妃 仁德恭明慈睿宣安王太后는 (중략) 追修(저승길을 밝힘)로도 유감은 없으나 이 妙經을 얻어 금으로 써서 매양 忌日에 이를 읽어 塵墨劫도록 범공양을 지을 뿐이다. “亡耦仁德恭明慈睿宣安...追修靡有遺憾 得此妙經以金書之妙於忌日披讀此部於塵墨劫作法供養耳”	1373년	국립중앙 박물관
11	돌아가신 어머니 철성군 부인 이씨의 영혼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만나 授記를 받고 일체지를 증득하시옵고, 또 원컨대 아버지 중대광 진성광 河氏의 寶體는 當來에 정토에 태어나시며 부처님의 외호하심을 청하여 범주인 德蘭은 妙法蓮華經 1부를 敬寫하고 유통하여 길이 범공양을 짓나니 은혜로 도우소서. “特爲 先妃鐵城郡夫人李氏 靈魂初生極樂世界 面奉彌 親受記 證一切智 又願 父重大匡管城君河氏 寶體延壽 保安當生淨土 請佛護 主法德蘭 敬寫妙法蓮華經一部 流通水祀作法供養福資 恩有者”	1377년	호림박물관

12	개성군 부인 김씨는 특히 먼저 돌아가신 남편 박중기 尊靈께서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며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도록 삼가 淨財를 내어 공경스럽게 법화경을 조성하나니 (후략) “先夫朴仲起遵靈斷惑證眞革凡成聖謹捐淨財敬成妙典流通永世作供養普 含靈齊承勝利不滯化城直至寶所者…”	1385년	국립중앙 박물관
13	우리들과 더불어 同願 檀那는今生에 함께 壽福을 더하고 후생에는 모두 보리를 증득하며 祖考 諸靈이 극락세계에 내어나고 일체 유정이 함께 妙利를 받아지이다 “我等與同題檀那 今世同增福壽 後生皆證菩提 祖考諸靈起生淨界一切有情俱承妙理云”	1386년	이화여대 박물관
14	우바이 張氏 妙愚가 삼가 성심으로 이 법화경을 서사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과 일체 有情이 함께 一乘에 들어가길 기원 “優婆夷張氏妙愚謹發誠心書寫此經用薦先亡父母及一切有情同入一乘者”	1389년	안동 광흥사

점을 쳤더니 비부라산에 있는 선인이 천수를 다한 후에 왕궁에 태어나 왕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선인이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 묻자 아직 3년이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왕은 3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선인을 살해하였다. 죽는 순간에 선인은 자신을 죽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 “왕자가 되면 언젠가는 신하에게 명하여 왕을 살해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이후 왕비인 위데희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阿闍世王이다.

이후의 이야기는 『관경』에 자세히 실려 있다. 阿闍世王은 장성하여 태자가 된 후 빈비사라 왕과 모후를 감옥에 유폐하여 결국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비극적인 상황을 겪으며 위데희 왕비는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석가모니불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 복과 열여섯 가지 관법을 설해주었다.

한편 아사세태자는 왕 위에 오른 후 부왕을 죽게 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전신에 피부병이 생겨 가렵고 아프고 악취로 밤낮을 고통스러워했다. 위데희 왕비는 아사세왕을 열심히 간호했지만 낫지 않았다. 결국 아사세왕은 왕실 의사인 기바의 권유로 석가모니를 찾아가 설법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니 죄의식이 사라짐과 동시에 병도 완전히 나았다.⁴² 이후 아사세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훌륭히 잘 다스렸으며 석존에게 귀의하여 제1결집을 완성시켰다.⁴³

아사세왕이 <영산회상도>에서 단순히 청문중이 아닌 보탑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한 채 예경을 드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관경』에서 설한 아사세왕의 패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면에서 아사세왕이 부처님이 아닌 다보불탑

42 頂法 撰, 湛然 再治, 「梵行品」, 『大般涅槃經疏』卷19.

43 『八萬大藏經解題』제4권(사회과학출판사, 1992), pp.215-216.

을 향하고 있는 이유는 法華三部經 중 하나인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이하 『觀普賢經』)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승경전을 독송하되, 밤낮으로 여섯 차례 꿇어앉아 참회하면서 말하되 “나는 지금 어찌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만을 뵈옵고, 多寶佛塔의 全身舍利는 뵈옵지 못하는가. 다보불탑은 항상 계시어 없어지지 않거늘 나는 눈이 흐리고 나빠서 뵈옵지 못하는구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참회하여 7일이 지나면 다보불탑이 땅에서 솟아나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오른손으로 탑의 문을 열면 다보부처님이 普現色身三昧에 들어 계시는 것을 보리라.⁴⁴

『觀普賢經』은 부처가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보현행을 대중에게 설한 경전으로, 관법을 통한 참회수행에 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의 글은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진심으로 참회할 때 다보불탑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다보불탑은 참회수행을 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구원을 증명해주는 상서로운 탑인 것이다.

고려 후기 천태승이었던 浮庵無寄가 저술한 『釋迦如來行蹟頌』(1328)에서도 “阿闍世王이 오역죄를 짓고도 의사 기바의 권유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성불하였다는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⁴⁵ 참회를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보탑의 원편에 합장을 하고 꿇어 앉아있는 사실을 통해 구체화된다. 사리불은 『법화경』 「譬喻品」과 「方便品」에서 석존의 교설을 청문하고 법문을 들은 후에 성불할 것이라는 授記를 받은 부처의 제자이다. 따라서 보탑을 중심으로 아사세왕과 사리불의 조합은 불도를 이루기 위한 최상의 법문인 『법화경』과 법화참법을 통해 성불할 수 있다는 의미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44 『普賢菩薩行法經』, T.9, p.389 c23-29. “復更誦讀大乘經典晝夜六時胡跪懺悔而作是言 我今云何但見釋迦牟尼佛分身諸佛 不見多寶佛塔全身舍利多寶佛塔恒在不滅 我濁惡眼是故不見 作是語已, 復更懺悔 過七日已 多寶佛塔從地涌出 釋迦牟尼佛即以右手開其塔戶 見多寶佛入普現色身三昧”.

45 釋雲墨 撰, 『釋迦如來行蹟頌』上, 『韓國佛教全書』第六冊, p.506 中下, “涅槃經義者 已如前示 此不煩錄 言廣額屠兒者 聞一切物 皆有佛性之言 放却屠刀 立地成佛 又阿闍世王 聞調達語 殺父瓶沙 心即勞熱 滿身生瘡 天下諸醫 無能治者 有一大醫 名曰 耆婆 卽白王言 欲治此病 莫如投佛 王卽依言 俱詣佛所 聞罪性空發菩提心 身瘡便愈云云 如來出世五時說法 次第如是”.

IV. 맺음말

고려 후기의 영산회상변상도는 남송대 판본이 유입되어 13세기 이후 유통되면서 조성되었고, 백련결사로 촉발된 천태종의 부흥과정에서 유행하였다. 영산회상도의 도상 중 하단에 표현된 용출하는 보탑과 보탑을 향해 예경을 드리는 아사세왕과 사리불 도상은 『법화경』의 성불사상과 죄를 참회하는 참법수행 등이 복합된 도성이다. 아사세왕은 『관경』에서 석가모니불이 위테희 왕비에게 극락왕생할 수 있는 16관수행을 설하게 만든 근본적인 인물이었다. 아사세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아마도 그가 아버지를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참회를 통해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희망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후기에 성행했던 『법화경』 신앙이 정토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과 『법화경』 독송과 사경, 그리고 법화참법이 당시 성행했던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식적으로 확인되는 영산회상도의 시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고려 후기의 사회변동과 역사적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당시의 불교신앙과 사상에 근거하여 도상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keywords

영산회상(변상)도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of Sakyamuni preaching at vulture peak (Yeongsan Hoesang Byeonsangdo), 법화경 Lotus Sutra, 천태 Cheontae, 예참 ceremonial repentance before the Buddha and Bodhisattva (Yecham), 아사세왕 Ajātaśatru

투고일 2016년 2월 15일 | 심사일 2016년 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7일

참고문헌

사료

『東文選 Dongmunmun』

『法華經 Lotus Sutra』

『普賢菩薩行法經 Samantabhadra-Anga Sutra』

雲墨 Wunmuk, 『釋迦如來行蹟頌 Buddha's Whereabouts Song』

了圓 Yowon, 『法華靈驗傳 Lotus Sutra Yeongheomjeon』

논저

강호선 Kang, Hosun, 「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The Changes Occurred inside the Goryeo Tiantai School during the Reigns of King Ch'ungyŏl and Ch'ungsŏn」, 『보조사상 Bojosasang』16, 2001.

문선희 Mun, Sunhui, 「고려시대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의 도상 연구 Lotus Sutra Frontispieces of the Goryeo Dynasty」,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64, 2009. 12.

이승희 Lee, Seunghi, 「高麗後期 淨土佛教繪畫의 研究-天台·華嚴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ure Land Buddhist Painting of the Late Goryeo Dynasty: With a Focus on Elements of Cheontae and Hwaeom Buddhism」,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h.D.diss., Seoul: Hongik University, 2011. 6.

이승희 Lee, Seunghi, 「고려 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Elem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Belief in the Pure Land of Tiantai through the Late Goryeo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in Saifukuji Temple」,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79·280, 2013. 12.

이승희 Lee, Seunghi, 「1323년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The Illustration of the Sixteen Contemplations in Chion'in Dated to 1323 and the Practice of Contemplation in Tiantai (School)」, 『불교미술사학 Journal of Buddhist Art』20, 2015. 10.

이승희 Lee, Seunghi, 「고려 후기 입상 아미타불도상의 재해석: 천태16묘관수행법의 영향을 통해서 A New Analysis of the Standing Amitaba Images in Late Goryeo Buddhist Paintings: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Sixteen Meditations Practice of Tiantai Buddhism」,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289, 2016.

- 정병삼 Jung, Byungsam, 「고려 후기 鄭晁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The Buddhist Literature Publication of Jung, An and Buddhist Beliefs in Late Goryeo」, 『불교학연구 *Journal of Buddhist Studies*』24, 2009.
- 이영자 Yi, Youngja,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The Deployment of Korean Tiantai Thought*』, 민족사 Seoul: Minjoksa, 1988.
- 허홍식 Huo, Heungsik,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Tiantai Thought and Eastern Culture*』, 불지사 Seoul: Buljisa, 1997.
- 허홍식 Huo, Heungsik, 『眞靜國師와 湖山錄 *Jinjungguksa and Hosan Record*』, 민족사 Seoul: Minjoksa, 1995.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ure Land Buddhism of the Late Goryeo Dynasty and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of Sakyamuni Preaching at Vulture Peak

Lee, Seunghi

During the late-Goryeo period, a large number of illustrated manuscripts of the Lotus Sutra in small letters was published. Among them, the frontispiece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of Sakyamuni preaching at vulture peak (Yeongsan Hoesang Byeonsangdo) bears significant academic value as it exhibits diverse aspects of the late Goryeo period including Buddhism and Buddhist thought, rituals,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ng Dynasty.

The iconographical representations in the lower register of the illustration, stupa rising from the ground and Ajātaśatru and Sāriputra worshipping the stupa, are understood as reflecting the attaining Buddhahood and the practice of repentance, which are central to the Lotus Sutra. In particular, Ajātaśatru was the fundamental figure who led Sakyamuni to preach to Queen Vaidehi the “sixteen visions,” the method to visualize the Western Pure Land of Amitayus and achieve reincarnation in the Paradise. Ajātaśatru is the icon of hope, who ultimately attained Buddhahood through penitence despite his act of immorality of killing his father. As the representations of the stupa and Ajātaśatru are depicted side-by-side in the Illustration, the stupa comes to be endowed with the meaning of an auspicious pagoda that only those who have repented of their wrongdoings can see, and they therefore symbolize salvation. The prevalence of the representations of stupa and Ajātaśatru as important iconographical depictions of the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of Sakyamuni preaching at vulture peak is because the images reflect the Buddhist culture at the time, when there prevailed religious practices such as recitation transcription of the Lotus Sutra and ceremonial

repentance before the Buddha and Bodhisattva(Yecham).

This study goes beyond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Illustration of the assembly of Sakyamuni preaching at vulture peak and interprets the iconographical representation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culture embedded in the social changes and historical transition of late-Goryeo and based on Buddhism and its thought.